

친환경 무상급식 가능한가?

유통농산물 90% 안전성 검증된 관행농업에 의해 생산

안전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관행농산물 중 안전성이 검증된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안전농산물 무상공급'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중 유기농산물로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로 하나둘씩 가시화 되면서 급기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어느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계속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를 생각을 해보았다. 이 공약의 힘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호를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들의 다수가 당선되었고 선거가 끝이 난 지금 이 공약을 실천하겠



김장억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다고 한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선거 전에 지방신문(5월 25일자, 경북일보 아침시론)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시론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선거 후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과연 친환경 무상급식이 현실적으로 가

능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의미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말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로 굳이 해석하자면 유기농산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과연 공약을 제시한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기농산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식품 인증과 관련하여 7가지의 국가인증제도가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 이력추적관리제도, 산업표준KSI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농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제도 등이다. 이 중에서 농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도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중 저농약농산물 절반이상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은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중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려고 금년부터 신규인증은 해주지 않고 2015년까지 기존의 저농약농산물에 한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이 나면 기간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만 남게 된다. 더욱이 위의 3가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모두 포함해도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농약농산물이 없어진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그 관리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GAP농산물이란 이력추적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수확 후 유통단계까지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농산물을 의미한다. 즉 농산물을 재배할 때 적용대상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나 비료만을 사용하되 철저히 기록하여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수확된 농산물에 남아있는 잔류농약도 식약청

친환경 무상급식 가능한가?

에서 설정한 잔류허용기준치(MRL)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수확된 농산물은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 및 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설, 즉 농산물우수관리시설(APC)을 통해서만 시판될 수 있는 농산물이다.

현재 GAP 농산물은 전체 유통 농산물 중 약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P 농산물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면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관리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는 인증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3% 정도라 생각한다면 친환경 무상공급은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용어의 혼란은 단체급식의 식재료 구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관여하는 대부분의 학부모 단체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 넓어서 모든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생산하여 공급한다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유독 친환경농산물중 유기농산물만을 고집한다면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올라가

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할 때 농약으로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관행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검사 철저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충분하게 생산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전국토의 70%가 임야이며 경제성장의 여파로 농경지가 점점 줄어들고 농업인구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중에 관행농업에 의하여 생산되어 유통되는 농산물이 약 90%정도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음식점에서는 관행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관행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은 재배단계에서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며 수확단계에서는 잔류허용기준에 의하여 관리된 최종 농산물만 유통단계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출하전 농산물은 4개 분야의 위해요소인 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수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용어사용을 분명히 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금년부터는 안전성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2개 분야 즉,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들과 방시능이 추가되어 6개 분야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행농산물의 안전성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는 생산, 저장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검사 농산물의 조사물량을 2009년도의 56,600건에서 13% 증가된 64,000건으로 계획하고 있고, 품목별 조사물량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무작위 샘플링 권고기준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의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

어 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농산물의 안전 관리 체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식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용어 사용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일부 시도에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표현을 '안전농산물 무상공급'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안전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그리고 관행농산물 중 안전성이 검증된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안전농산물 무상공급'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중 유기농산물로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